

끔찍한 인내,

시엠립의 결핵 실태

1인당 국민소득이 580달러에 불과한 캄보디아는 결핵 뿐만 아니라 영유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 HIV/AIDS 감염률 등 전반적인 보건 분야 지표가 동남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다. 3월 24일은 세계결핵의 날이지만, 현재, 캄보디아 뿐 아니라 세계 결핵환자들의 실태는 끔찍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180만명이 넘는다.

비위생적인 병원실태

새벽 4시, 캄보디아 시엠립(Seam-riap) 주 병원, 환자들은 어김없이 제 시간에 일어나 결핵약을 복용하고 담당의사의 진찰을 기다린다. 같은 시간, 주사실 간호사들은 맨손으로 주사기에 바늘을 장착하고, 약물을 주사기에 충전한다. 한 시간 여의 회진이 끝나면, 환자들은 주사를 맞기 위해 주사실 옆 통로의 긴 의자에 모여 앉는다. 환자들이 주사를 맞는 공간은 주사실 침대 위가 아니라, 통로의 긴 의자다. 그리고 환자들은 의자에 엎드려 주사를 맞는다. 위생적이지 못한 주사 환경은 면역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환자들에게 제3의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실제 병원에는 결핵뿐 아니라 피부 괴멸과 근육 염증 등까지 발병해 고생하는 환자들이 더러 있다.



같은 병을 가진 환자이지만 병을 얻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

위생적이지 못한 주사 환경은 면역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환자들에게 제3의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실제 병원에는 결핵뿐 아니라
피부 괴멸과 근육 염증 등까지
발병해 고생하는 환자들이 더러 있다.



환자들이 낮잠을 지는 시간, 환자 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간병인 고용은 우리에게 꿈같은 이야기다.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약자의 경우
결핵이 전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시애틀 주 병원에는 부모로부터
결핵이 전이 된 아이들이 있다.

면역력이 약한 가족 간병인에게 결핵이 전이되기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환자뿐이 아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 모두가 잠에서 깨다. 결핵에 걸린 아버지를 둔 두세 살의 소녀부터 결핵에 걸린 남편을 간병하는 예순 살이 족히 넘어 보이는 아내까지, 모두가 새벽에 일어난다. 특별히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거나, 간호사가 상사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시엠립 주 병원에서 만난 음 씨는 “캄보디아 시엠립 주 병원에는 결핵 환자들을 돌볼 일손이 부족하고,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들은 가난한 환자들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에서 환자들을 특별히 돌봐줄 수 있는 간병인 고용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간병인 고용은 우리에게 꿈같은 이야기다.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약자의 경우 결핵이 전이될 수 있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시엠립 주 병원에는 부모로부터 결핵이 전이된 아이들이 있다.

결핵으로 외해된 가족, 그리고 결핵환자들의 이야기

캄보디아에서의 결핵은 가족 구성원을 와해시키기도 한다. 시엠립 시 인근, 수도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나무집에서 쓰리옹 씨 홀로 자식 둘을 양육하며 살고 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2년 전 자신이 결핵에 걸리자 남편은 자신을 떠났고, 남편은 현재 다른 여자와 살림을 꾸렸다. 결핵으로 몸도 마음도 아프다”고 전했다. 아버지 없는 아이들 뒤로 그녀가 결핵에 걸리기 전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 있다.

이들은 같은 병을 가진 환자이지만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옷 공장 에서 미세 섬유먼지를 마시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다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건물 지하실에서 숙식하며 근무하느라 한 달에 한 번 햇빛을 봤다는 버마계 캄보디아인, 그리고 남편의 결핵을 간호하던 중에 결핵을 얻은 여성 등, 병원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캄보디아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의료 환경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 수준과 결핵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70대 여성 결핵 환자가 고통스러워하자, 가족들이 달려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보건 지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결핵 감염률

현재 시엠립 시는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캄보디아 북부에 사는 많은 환자들이 시엠립 시내에 위치한 주 병원으로 몰려온다. 그러나 이 환자들을 모두 돌볼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 질병 혹은 사고를 위해 연간 일인당 33불(USD 기준)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의 보건 지출은 일인당 2불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 때문일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7년 발표 기준, 캄보디아에서는 연간 10만 명 중 703 명이 결핵에 감염된다. 이는 아시아에서 동티모르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결핵 감염률이며, 세계에서는 일곱 번째로 높은 결핵 감염률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질병 혹은 사고를 위해 연간 일인당 33불(USD 기준) 정도의 보건의료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의 보건 지출은 일인당 2불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차원의 간병인 고용지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약자의 경우 결핵이 전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캄보디아 결핵의 또 다른 문제, '다제 내성 결핵(MDR-TB)'의 확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결핵 치료약에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결핵(MDR-TB)'이 확산돼 문제가 되고 있다. 주 병원의 '다제내성결핵' 병동에 있으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위해서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 뿐더러, 환자는 2년 동안 치료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런 인내가 결핵 치료를 위한 마지막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치료비용과 심한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이 '다제내성결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